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한마음 명랑운동회 개최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에서는 지난 23일 복지관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누리전당 산터전에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진행했다. 명랑운동회는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이용자들이 함께 모여 운동회에 참여하며 함께와 더불어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통놀이 체험부스, 보치아 공던지기, 흡진출 왕 공굴리기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8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정호영 관장은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마음 명랑운동회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고, 복지관의 비전처럼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자기 삶의 주체가 되고, 서로 돕고 나누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서·장수군, 교통환경 개선 위한 간담회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는 지난 23일,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장수군청 교통시설팀장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올해 관내에서 경운기, 보행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최근 대전시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강화 등 대책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또한, 보행자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시내권 횡단보도상 횡주로등 설치 등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시범 설치 후 상호협력 확대 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수공예 플라마켓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24일 작업치료 증제의 한 분야인 치료적 수공예를 배우면서 실습 과정에 만들어진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라마켓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수공예 원데이 클래스를 주최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 예비 작업치료사인 학생들이 전공 과정 중 제작한 수공예품과 이번 행사를 위해 기증받은 물품을 함께 판매했다. 한편 전주대 작업치료학과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은주 교수는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만들어 낸 결과물들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수공예 활동의 작업 치료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자기 기획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마을기술학교 '집수리 교육' 수료식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24일 2023년 진안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술학교 '집수리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마을기술학교는 2021년부터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 속 간단한 수리 기술 습득에 대한 지역 수요를 고려해 농촌의 현실에 맞춰 교육 운영과 교육생 역량강화에 힘써왔다. 이번 교육은 실습 위주로 콘센트와 스위치, 문 경첩, 방충망 욕실, 주방 부속품 교체, 실리콘 코킹 등의 생활 속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했다. 수료생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집에서 수리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의 실습으로서 평소 궁금한 점도 해결하고 여유를 가지며 집을 고칠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제15회 용담호 환경대학 입학식 개최

39명 대상 환경교육 통한 용담호 환경리더 양성

진안군은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회장 김정길)에서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24일 진안군민자치센터에서 제15회 환경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학식에는 입학생 39명 및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학부모 △학생선서 △환영사 및 축사와 진안군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첫 강의가 진행됐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올해로 15번째 신입생을 맞이해 2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총 6회에 걸쳐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올해 환경대학은 환경분야 교수, 유관기관, 환경단체 등 환경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용담호 수질지킴이와 주민실천방향 △비점오염원 관리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체험 등 주민의식개인과 지역사회 환경리더 양성을 위한 다양한 강의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정길 용담호수질개선협의회장은 "용담호 환경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의 환경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했



며, 용담호 수질지킴이들의 지속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책임있는 수질개선 실천 노력에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환경대학과정을 이수하고자 모인 교육생의 열정과 노력을 격려한다"며 "재롭게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입학생 모두가 용담호 맑은 물 유지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글로벌대학 육성 상생협력 더욱 강화

전주대, 중소기업인과의 토론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3일 수퍼스타칼리지 세미나실에서 글로벌대학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주대는 글로벌대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 10개 내외, 2028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박진배 총장은 "글로벌대학으로의 비전을 품고 담대한 혁신을 수립하고 있다"며 "학생의 미래기지와 성공을 실현하



는 대학으로서 교육부의 글로벌대학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삼례초 태권도부, 소년체전서 金·銀 획득

삼례초등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이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사전경기로 진행된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남자 13세 이하부 38~42kg급에서 박지훈(삼례초 6학년)이 금메달을, 여자 13세 이하부 46~50kg급에서 전주희(삼례초 6학년)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먼저, 박지훈은 조용한 성격을 가진 작은 체구의 선수다. 하지만 침착한 경기 운영과 빠른 발차기로 준결승에서 천지원(충북 내토초)에게 2-1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이한주(경북 오천초)를 2-0으로 누르고 전라북도 선수단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다. 또 전주희는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전시킨 선수다. 16강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배지에(충남 부성초)에게 주심직판승(RSC)으로 승리를 거두고 쾌속으로 결



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에서 유서린(충북 개신초)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 식중독 발생 대응 모의훈련 실시

무주군은 24일 무주군청 집단급식소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군청 구내식당 이용자의 식중독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무주군청 안전재난과와 보건행정과, 급식시설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훈련 참석자들은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상황부터 △식중독 발생 상황보고, △전라북도도와 식물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보고 및 협동 △식중독 원인규명 조사를 위한 환경조사 및 인체 검사 절차를 진행했으며 △식중독이 발생한 무주군청 집단급식소 소독과 종사자 교육 등 식중독 사후 조치도 시행했다. 훈련 후에는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들이 훈련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개선점과 식중독 대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이상하 과장은 "식중독은 사전예방이 우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주군에서는 오늘 훈련을 토대로 민일



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관내 기관이나 학교, 기업 등의 단체급식소를 비롯해 구천동 등 여름철 주요 관광지에 소재한 음식점들이 시설 및 종사자 위생과 식재료 신선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어린이집 119청소년단 입단식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24일 2023년 119청소년단 어린이집 119청소년단 입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119청소년단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해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미래 안전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단체다. 119청소년단은 소방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119안전교육체험·화재예방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안전을 실천하고 배우게 되며, 현재 남원 관내 어린이집 2개, 초등학교 1개 총 3개의 119청소년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재실 서장은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어린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안전의식을 가져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찾아가는 범죄예방활동 전개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영능철과 행락철을 맞이하여 지난 4월부터 빈집탐방, 차방탐방 등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시외권 경로당과 시내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민들이 집중되어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절도 사례, 절도 예방 수칙 등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관서는 관서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자체 범죄예방활동을 시행함에 따라 시외권 지역관서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대상 외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의 절도 예방 기본수칙을 홍보하였으며 시내권 지역관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지하 주차장 내 CCTV의 정상 작동 유무와 신규설치 여부 등 전반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통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CPO(범죄예방진단팀)에게 통보하고 관리사무소 방송을 활용하여 차방탐방 안전수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전단을 통해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순찰이 필요한 곳은 순찰을 신청할 수 있는 탄력순찰 시스템을 홍보하고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112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였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경찰서, 춘향제 행사장 주변 특별 점검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제88회 춘향제를 맞아 행사가 진행되는 관한루원 일대와 관광단지 주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치안 불안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남원경찰서, 남원시청 등이 합동으로 전문 탐지장비(적외선탐지기, 열화상탐지기 등)를 활용, 행사장 주변 상변 등 불안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순찰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점검장소 내 위험요소(안심가림판, 잠금장치 등), 초소형 카메라 설치 의심 흔적,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지와 비상벨 작동 여부도 병행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사찰 대상 선제적 범죄예방 점검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사찰·암자 68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사찰간의 연휴로 사찰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찰 내·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범죄예방진단팀(CPO) 및 지역 관서에서는 사찰과 암자를 방문해 CCTV 작동상태 등 방범시설물을 점검하고, 불전함과 문화재 절도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순찰활동 및 행사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경찰을 집중하여 배치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23년 11월 28일 5:25(목) (주)전주매일 전북 가0016 (주)전주매일 전북 가0016 2023년 11월 28일 5:25(목) (주)전주매일 전북 가0016